

# 충남교육청,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 발표



1 김지철 교육감(가운데)이 환경업(초록발자국) 운영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 김지철 교육감이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행복이름 환경교육'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해 건강한 생태환경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학교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올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충남환경교육을 추진하겠다"면서 생태환경에 대한 실천적 교육을 통해 생태환경문화를 조성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환경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6대 정책을 강조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실천하는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을 전개한다. 3·6·5운동은 3가지 요소(전기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를 줄이고, 6가지 요소(환경독서, 분리배출, 채식급식, 녹지공간, 착한 소비생활, 친환경 제품 사용)를 늘리며, 환경보호 5대 공통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실천하는 운동이다.

두번째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 중심의 환경교육을 실천한다. 유치원은 바깥 놀이를 통한 생태환경교육을 하고, 초등학교는 지역사회 환경을 이용한 경험학습과 체험중심의 생태환

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학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하고 지역 생태환경 중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세번째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밀착 환경교육을 한다.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을 초·중·고 3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학교 텃밭이나 이동형 대형 통에 버나 고구마 등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야생화 화단을 조성하면서 식물의 성장과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교육한다.

네번째로 환경교육 특구를 지정 운영한다. 도시, 산림, 해안, 하천(농업), 기후·에너지 등 5개 주제 중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환경교육을 증점적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 특구를 운영, 학생들이 지역의 환경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다섯번째로 학교 교육과정을 도와주는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과학교

육원을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자료개발, 교사 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연계한 환경교육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생태 감수성을 갖춘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충남도, 지역 환경단체가 협력해 환경교육을 펼쳐간다.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에서 생태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의 대전환, 행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생태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